

박대통령 “지방분권·국민행복 반드시 성과내야”

취임 100일 앞두고 각 부처에 ‘결과물’ 강조

“지방재정 전면공개 포괄적 지원 필요” “고용률 70%위해 노사정 대타협 추진”

박 대통령은 20일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과 중앙이 해야만 되는 것을 딱 나누 다음에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이 하라고 하고 그 대신 정부가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분권과 관련 “중앙도 정부3.0 취지에 따라 필요한 건 다 공개를 하는 마당에 지방재정도 다 공개해 지방주민들이 (각종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지방조례도 다 공개해 어느 지역이 중소기업 활동에 더 좋은지를 지방주민들이 보도록 해 지방정부가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행복이 새 정부의 최대 목표인데 이 국민행복이라는 나무가 푸른 이파리를 갖고 점점 자라야 얘기가 되는 거지, 성과가 안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노력은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새 정부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주문은 내달 초 취임 100일을 앞두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어린이 영어교육과 관련, “어려운 집안의 어린이들도 TV만 켜면 얼마든지 직접 배우는 것 못지않게 배울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아주 훌륭한 영의 강이나 영어 드라마 같은 것을 어린이들이 자막을 통해 얼마든지 돈 안 들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료공개 필요성에 언급해 “유치원이 특별활동 학습비를 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수요자인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고, 교원평가제에 대해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지도가 우수한 교사가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한 ‘공약가계부’와 관련, “공약가계부가

10%면 90%는 실천”이라면서 “실천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국회의 입법절차인데 공약사업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려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대부분 마무리돼야 한다”며 당정청 협력과 대야 협조 요청 등을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용률 70% 달성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이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도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신뢰와 자기양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安, 또 신경전

‘5·18대결’ 이어 깎아내리기 설전

5·18을 계기로 광주에서 ‘호남 민심잡기’ 경쟁을 벌였던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이 20일 정면충돌은 피해 가면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당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독자 세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안 의원의 움직임에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의제만 생각하겠다”며 경제민주화 입법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의 ‘광주선언’에 대해서도 “이미 민주당의 ‘을(乙)’을 위한 광주선언’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깎아내렸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안 의원의 자신의 포지션을 범야권이라고 했는데, 그 무거운 짐은 중간지대에 있고, 민주당은 전통적인 진보개혁 지대에 있다”고 차별화했다.

민 본부장은 안 의원의 관계와 관련, “궁극적으로 연대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선의의 경쟁을 하고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당장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안 의원이 ‘새정치’를 내세워 민주당을 ‘구태 정치세력’이라고 몰아세우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제를 ‘새정치’로 축

소하지 말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내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성과를 넘어서 원내 단거필마인 안 의원과 비교해 현실적인 대안세력임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안 의원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새로운 정치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책임정치”라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기대만큼 스스로 큰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국민의 불신을 받거나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지 못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친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대선 때나 4·24 노원 선거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문을 열고 훌륭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남 전 비서실 부실장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의원의 정치적 위치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포괄해내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절대적 세력’으로 규정, 민주당과 거리를 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부대표단 추가 인선

기획 진성준·당무 김현

안보 백군기·노동 은수미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4대강 불법비리 진상 조사위원회 출범식 및 피해증언대회에서 이미경 위원장(오른쪽부터), 장병완 정책위의장, 임내현, 김춘진, 이만영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0일 기획과 당무담당 부대표로 각각 진성준, 김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원내부대표단 추가인선을 발표했다.

대외협력 담당 원내부대표로는 김성주 최동익 의원, 안보 담당에는 백군기 의원, 노동·임금 담당에는 은수미 의원, 청년정책 담당에는 장하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의원당에는 이윤서 부차현 정호준 의원이 유입됐다.

이 가운데 진성준 김현 은수미 의원은 친노(친노무현)·범주류 측으로 분류된다. 전날 발표된 홍익표 이인주 원내대변인 가운데 홍 의원도 범주류로 분류돼 계파 안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오직 실력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면서 “고사했던 많은 의원을 설득해 인선했는데, 선당후사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민주 ‘4대강 사업 조사위’ 출범

국정조사 당력 집중...상징색·엠블렘·로고 등 당 이미지 개선 착수

민주당이 당의 상징 색, 엠블렘, 로고 등 정당 이미지 개선작업(PI, Party Identity)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12개 이미지 개선작업 전문업체들로부터 입찰참가 의향서를 제출받았다.

박광온 홍보위원장은 이날 “새로 제정될 PI에 당의 혁신 의지와 민주, 복지, 평화의 가치,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정당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당의 공식 색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7년 창당한 광민당 시절엔 ‘노란색’이었지만 이후 창당과 합당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당의 상징색도 바뀌어왔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시절엔 ‘녹색’이었고 직전 민주통합당은 노란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정하고 녹색을 복지, 평화의 가치,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정당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담은

프는 캠프상징인 담쟁이에 맞춰 공식 색깔을 진한 녹색에 가까운 ‘올리브 그린’으로 정해 ‘색깔 정체성’에 혼란을 내렸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일각에서 보수인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택한 것처럼 ‘과격 선택’을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엠블렘과 로고도 어떻게 바꿀지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엠블렘은 하나의 곡면으로 이어진 ‘파비우스의 띠’를 응용했다. 정당과 시민, 노동자가

하나돼 탄생한 정당이라는 의미를 담았다지만 쉽게 이해가 안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4대강 불법비리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기존 민주당이 운영하던 ‘4대강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출범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국정조사 준비 상황과 정부의 대응 등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4대강 민·관 공동단’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한편, 건설업체 탐합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엄중히 진행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 임명

대변인 유일호·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친박체제 강화

새누리당의 신임 사무총장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홍문종(3선·경기 의정부)이 임명됐다.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귀위 위원회의를 열어 홍 의원에 대한 사무총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민천주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수도권 출신인 홍 사무총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원조 친박’ 인사로,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선대위’ 조직 총괄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 15일 선출된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모두 영남권 출신이라는 점도 인선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또 당 대변인에 박 대

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경제정의 유일호(재선·서울 송파)를 임명했다. 이상일 대변인 후임으로 임명된 유 대변인은 유일된 민천주 대변인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또 전략기획본부장에는 친박 핵심인 김재원(재선·경북 군위·의성·청송)이 임명됐다.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에 이어 사무총장, 대변인 등 핵심 당직에 친박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여권의 친박 체제는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급주 중 원내지도부와 정책라인 인선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임대

주인 임대함
010-4667-9300

목포. 2호 광장 코너

- 구, 맹수 한의원 건물(용당동 1056-5)
- 각층 100평, 1~5층 상가, 6층 고급주택
- 1층 - 아웃도어 매장확정
- 2층 - 한의원 확정
- 3층 -
- 4층 - 보험회사 확정
- 5층 -
- 6층 -